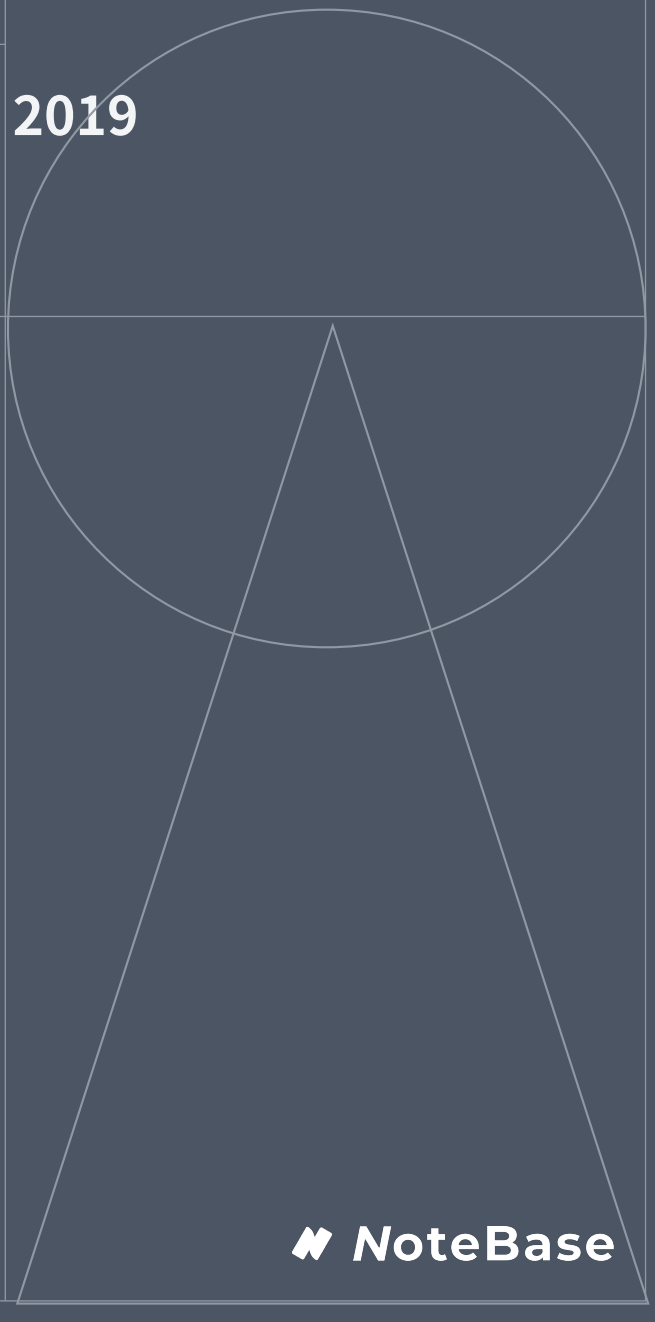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9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9

문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에서의 ‘-세요’, ‘-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 표현에서 특수 어휘, 재귀대명사, 겸양 표현, 사물 높임의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겸양 표현은 화자 쪽을 낮추어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다.
특수 어휘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높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겸양 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다.
재귀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당신'이 쓰일 수 있으며, 서비스 표현의 '-시-'는 공손함 때문에 사물에 임의로 붙일 수 있는 표지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겸양 표현으로도 쓰인다. 따라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 '말씀'을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다.
올바르게는 '제 말씀'도 가능한 표현이다.

② O: 이 문장의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이 아니라, 앞에 나온 높임 대상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는 3인칭 재귀대명사적 용법이다. 즉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설명이 맞다.

③ X: 자기와 관련된 부분을 낮춘다고 해서 언제나 '저희'를 붙이는 것은 아니다.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처럼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도, '저희 나라'처럼 나라를 낮추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상황에 따라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처럼 표현할 수 있지만 나라를 가리킬 때는 보통 우리나라라고 한다'이다.

④ X: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의 '-세요', '-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다. 사람을 높이는 선어말어미 '-시-'를 가격이나 품절 같은 사물성 대상에 과도하게 붙인 표현일 뿐이다.
틀린 표현은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사물을 높인 과잉 높임 표현이며 표준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이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말씀'을 무조건 높임말로만 외운 경우에 흔들리기 쉽고, 3번은 '저희'가 공손해 보인다는 이유로 모든 명사 앞에 붙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4번은 서비스 현장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라 익숙함 때문에 맞는 높임말처럼 느껴지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임 표현 문제는 공손해 보이는가를 보지 말고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높이거나 낮추는가를 따져 판단한다. '말씀'처럼 겸양 기능이 함께 있는지, '당신'이 2인칭인지 3인칭 높임인지, '저희'를 붙일 대상이 적절한지, '-시-'의 주어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말씀'은 높임말이면서 겸양어가 될 수 있고, '당신'은 3인칭 높임으로도 쓰인다. '저희 나라'와 '품절이십니다'는 공손해 보여도 적절한 높임 표현은 아니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파생 접미사와 전성 어미를 구분하고, 접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생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어 새 단어를 만드는 접사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활용형을 만들어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지만 접미사는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품사를 바꾸는 파생 접미사 '-답-'을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기'의 '-기'는 동사 '보다'에 붙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명사처럼 쓰이지만 접미사가 아니므로 ①의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보기'는 접미사가 아니라 전성 어미가 쓰인 말이다.

② O
'정답게'는 형용사 '정답다'에서 나온 말이다. '정답다'는 명사 '정'에 파생 접미사 '-답-'이 붙어 형용사로 바뀐 것이므로, 접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꾼 예에 해당한다.

③ X
'크기'의 '-기'도 형용사 '크다'에 붙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품사가 바뀐 것처럼 보이더라도 접미사가 아니라 어미이므로 ①의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크기'는 전성 어미에 의해 명사형으로 쓰인 말이다.

④ X
'낚시질'의 '-질'은 명사 '낚시'에 붙은 파생 접미사이지만 결과도 명사이므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또 '하기'의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이므로, 밑줄 부분 전체는 ①처럼 접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꾼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낚시질'은 품사 변화 없는 접미사 파생어이고 '하기'는 전성 어미이다.

오답 포인트

'-기'가 붙어 명사처럼 보이면 곧바로 접미사라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전성 어미와 파생 접미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①, ③, ④를 모두 그럴듯하게 보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 부분의 끝요소가 접미사인지 어미인지부터 가른다. 접미사라면 붙기 전후의 품사를 비교하고, 어미라면 품사가 달라 보여도 ①의 예에서 제외한다. '-기'는 대표적인 명사형 전성 어미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는 전성 어미이고, '-답-'은 명사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애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나바호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기지. 그런데 만약 나바호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플래그스태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끄덕인다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 버릴 것이네.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먹은 말 알지? 영양실조에다 안짱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장과 함께 자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호인은 희색이 만면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 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이네.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나바호인의 현재 실재 중심 시간관이 미래 이익에 대한 태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재 실재 중심 시간관: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것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 결정 차이축: 현재의 구체적 실재를 중시하는가, 장래의 추상적 이익을 중시하는가 / 키워드: 현재, 눈앞, 실감
장래 이익 약속: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약속이다. / 결정 차이축: 미래 보상을 현실적인 가치로 느끼는가 / 키워드: 미래, 약속, 투자 가치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은 나바호인이 과거의 말을 기억할 수 있다는 예를 들지만, 그것으로 기억력이 좋다거나 기념일 선물을 잘 챙긴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기억력 자체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기억력이 좋아서"와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이다. 올바르게는 과거 일을 기억할 수는 있어도 장래의 선물 약속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② X
지문은 나바호인이 미래의 약속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성향을 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미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을 현재의 현실처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한다.

③ O
마을 구획정리 사업의 투자 가치는 장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한다. 지문은 나바호인이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하고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앞으로의 투자 가치를 내세운 사업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④ X
나바호인이 말을 사랑한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기마민족이라는 규정이나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는 일반화는 할 수 없다. 또한 지문에서 선물의 핵심은 말이라는 대상 자체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구체적 선물이라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기마민족"과 "최상의 선물"이다. 올바르게는 나바호인은 말을 좋아하더라도 눈앞의 구체적 선물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감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지문의 예시를 곁가지 정보로 일반화하는 데 있다. ②는 미래 약속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약속 불이행 성향으로 바꾸었고, ④는 말 이야기를 근거 없이 기마민족과 최상의 선물이라는 과장된 진술로 넓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문제에서는 지문의 핵심 명제를 먼저 잡아야 한다. 이 글의 핵심은 "눈앞의 현재만 실재처럼 느끼고 미래의 이익 약속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므로, 각 선지가 이 명제의 직접적 귀결인지 아니면 과장·비약인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나바호인의 시간관은 현재 실재 중심이며, 미래 이익 약속에는 둔감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화의 의미와 기능이 문자 표현만으로 고정되지 않고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발화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말이며, 그 의미와 기능은 맥락을 전제로 해석된다. 상황 맥락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때에 왜 말했는지를 뜻하고, 발화 기능은 질문·질책·제안·요청·명령처럼 말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지문은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와 기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할 뿐, 같은 의미 안에서 어감의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이다. 올바르게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이다.
2번: X. 지문에서 의미를 바꾸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억양이 아니라 상황이다. 틀린 표현은 '억양에 따라'이다. 올바르게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이다.
3번: O. 같은 발화인 '지금 뭐 하니?'도 상황에 따라 단순한 질문, 질책, 제안, 요청,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지문 내용과 일치한다.
4번: X. 지문은 문자 텍스트만으로는 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일정한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상황을 함께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황 맥락에 따른 의미 변화와 억양·어감 같은 표현상의 차이를 섞어 보면 1번이나 2번으로 흐르기 쉽다. 이 지문은 말투의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같은 발화가 상황에 따라 수행 기능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이 발화 해석의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먼저 잡으면 된다. 여기서는 상황이 핵심 기준이므로, 선택지에 억양·어감·문자 자체 우선 같은 다른 기준이 나오면 지문과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발화의 의미는 문장만으로 고정되지 않고 상황 맥락 속에서 기능까지 함께 정해진다.

NoteBase

문 5. ㉠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① ㉠: 잡고, ㉡: 닮고, ㉢: 갈 곳, ㉣: 하늘소
② ㉠: 받고, ㉡: 앉더라, ㉢: 발전, ㉣: 물동이
③ ㉠: 놓습니다, ㉡: 삶더라, ㉢: 열 군데, ㉣: 절정
④ ㉠: 먹고, ㉡: 껴안더라, ㉢: 어찌할 바, ㉣: 결석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을 예시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 받침 'ㄱ, ㄷ, ㅂ' 뒤에 오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ㄴ: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의 첫소리 평음이 오면 경음화된다.
ㄷ: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ㄹ: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잡고'는 [잡꼬], ㄴ의 '담고'는 [담꼬], ㄷ의 '갈 곳'은 [갈꼳]으로 맞다. 틀린 부분은 ㄹ의 '하늘소'이다. '하늘소'는 고유어이므로 한자어에서 'ㄹ' 뒤에 'ㄷ, ㅅ, ㅈ'이 오는 경음화의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결석', '절정', '발전' 같은 한자어 예가 와야 한다.
② X: ㄱ의 '받고'는 [받꼬], ㄴ의 '앉더라'는 [안떠라]로 맞다. 틀린 부분은 ㄷ의 '발전'과 ㄹ의 '물동이'이다. '발전'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가 아니라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 'ㅈ'이 경음화되는 예이다. '물동이'는 고유어이므로 ㄹ의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ㄷ에 '갈 곳'이나 '어찌할 바'가, ㄹ에 '발전'이나 '결석'이 와야 한다.
③ X: ㄴ의 '삶더라'는 [삼떠라], ㄹ의 '절정'은 [절쩡]으로 맞다. 틀린 부분은 ㄱ의 '놓습니다'와 ㄷ의 '열 군데'이다. '놓습니다'는 받침 'ㄱ, ㄷ, ㅂ' 뒤 경음화의 예가 아니라 'ㅎ' 계열 받침 뒤의 발음 변화가 나타난 형태이다. '열 군데'의 '열'은 수관형사이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아니므로 ㄷ의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에 '먹고'나 '잡고'가, ㄷ에 '갈 곳'이나 '어찌할 바'가 와야 한다.
④ O: '먹고'는 [먹꼬]가 되어 ㄱ의 예이고, '껴안더라'는 [껴안떠라]가 되어 ㄴ의 예이다. '어찌할 바'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의 'ㅂ'이 경음화되어 [어찌할 빠]가 되므로 ㄷ의 예이다. '결석'은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의 'ㅅ'이 경음화되어 [결썩]이 되므로 ㄹ의 예이다.

오답 포인트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난 경음화인가'를 묻는다. 특히 ②의 '발전'은 경음화 자체는 맞지만 ㄷ이 아니라 ㄹ에 들어가고, ③의 '열 군데'는 '열'이 '-(으)ㄹ'처럼 보이지만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수관형사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를 볼 때는 먼저 앞말의 끝소리와 뒤말의 첫소리 관계를 본다. 그다음 '받침 ㄱ·ㄷ·ㅂ 뒤인가', '비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 뒤 어미인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인가', '한자어의 ㄹ 뒤인가'를 차례로 대입하면 분류가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경음화는 소리만 같다고 한데 묶지 않는다. ㄷ은 '-(으)ㄹ 뒤', ㄹ은 '한자어 ㄹ 뒤'라는 환경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형형 표현의 쓰임, 조사 선택, 부정 표현의 활용이 어법에 맞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형형은 체언을 꾸미는 형식이고, 부사는 용언을 꾸미는 형식이므로 둘의 자리와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조사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호응 관계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뒤지다'에는 보통 '에게'를 쓴다.
'-지 않다'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 명사를 꾸미는 관형형은 '-는'이 아니라 '-은'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능한 빨리'는 관형형 '가능한'이 부사 '빨리'를 바로 꾸미는 꼴이라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다. 틀린 표현은 '가능한 빨리'이고, 올바르게는 '가능한 한 빨리' 또는 '가능하면 빨리'이다.
② X: '그들에 뒤지지 않는'에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는 조사 '에'보다 '에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틀린 표현은 '그들에'이고, 올바르게는 '그들에게'이다.
③ O: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은 두 행동을 대비하여 명사절로 만든 표현이고, '그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도 호응이 자연스럽다. 밑줄 친 '늘리는'의 활용은 어법상 적절하다.
④ X: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은 '-지 않다'의 관형형을 잘못 쓴 것이다. 틀린 표현은 '않는'이고, 올바르게는 '효과적이지 않은 논평'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일상적으로 자주 들리는 표현이라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쉽고, ④는 동사 '않다'처럼 보여 '않는'으로 착각하기 쉽다. ②는 조사 하나 차이라 눈에 덜 띄므로 비교 대상이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이 나오면 먼저 그 말이 명사를 꾸미는지, 용언을 꾸미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와 부정 표현의 관형형이 맞는지를 보면 어법 오류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 뒤지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은 순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가토리'와 '都沙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뽀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온대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뇽총도 근코 돗대도 것고 치도 빠지고 ᄇᆞ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계 ᄌᆞ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믄듸 四面이 거머어득 져뭇 天地寂寞 가치노을 ᄯᅥ는듸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ᄀᆞ을ᄒᆞ리오.

① 孤子單身
② 螳螂拒轍
③ 磨杵作針
④ 百尺竿頭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어진 두 처지의 공통 성격을 파악한 뒤, 그 상황과 가장 정확하게 대응하는 한자 성어의 뜻을 고르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가토리'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이 매에게 쫓기는 처지이다.
- '都沙工'은 큰 바다 한가운데서 노와 닻을 잃고 돛대와 키까지 망가진 데다 수적까지 만난 처지이다.
- 두 경우의 공통점은 친족이 없다는 점이나 무모하게 맞선다는 점이 아니라, 퇴로가 없는 극도의 위태로움과 절박함이다.

핵심 개념

백척간두는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에 선 것처럼 매우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이 문제는 각 성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제시된 상황의 핵심 정서를 그 의미에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적용 기준

사례에 등장한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본다. 주어진 글은 두 대상 모두 사방이 막힌 채 목전의 위험에 내몰린 상태를 강조하므로, '위태로운 처지'를 뜻하는 성어가 맞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孤子單身은 의지할 사람이나 혈육이 없이 외롭게 홀로 있는 처지를 뜻한다. 제시된 상황의 핵심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당장 닥친 위험과 궁지이다. 틀린 표현은 '외로운 홀몸'에 초점을 맞춘 점이며, 올바르게는 '매우 위태롭고 절박한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어야 한다.
② X: 螳螂拒轍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제 힘은 생각하지 않고 강자에게 덤비는 무모한 저항을 이른다. 제시된 두 대상은 강자에게 맞서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몰린 모습이다. 틀린 표현은 '무모한 대항'이며, 올바르게는 '퇴로 없는 위기 상황'을 뜻해야 한다.
③ X: 磨杵作針은 절굿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큰 노력과 끈기로 목적을 이룸을 비유한다. 제시문에는 인내 끝의 성취가 아니라 벗어나기 어려운 위험이 드러난다. 틀린 표현은 '끈기와 성취'이며, 올바르게는 '극한의 위태로움'을 나타내야 한다.
④ O: 百尺竿頭는 백 척 장대 끝에 선 것처럼 몹시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이른다. 매에게 쫓겨 숨을 곳 없는 가토리와,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장비를 잃고 수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처지는 모두 이 뜻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오답 포인트

위기 상황을 보고 ②의 '강자와 약자' 구도로 잘못 읽거나, 처지의 외로움만 보고 ①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은 대항 여부나 신세의 외로움보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형세를 반복적으로 부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 적용 문제는 먼저 제시문에서 중심 정서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이 문항은 '외로움'이 아니라 '궁지, 위태로움'으로 압축하면 정답이 ④로 좁혀진다.

암기 포인트

백척간두는 장대 끝에 선 형세이므로 퇴로 없는 위태로움을 뜻한다.

NoteBase

문 8.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이끄는 대로 따라갈밖에.

② 용수야, 5년만인데 한잔해야지.

③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텐데.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와 조사, 보조사의 결합에서 띄어쓰기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따라갈밖에'의 '-ㄹ밖에'처럼 어미로 굳어진 말은 앞말에 붙여 쓴다.
'만'이 '5년 만'처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텐데'는 '터인데'가 줄어든 말로 의존 명사 '터'를 품고 있으므로 '할 텐데'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만큼'은 품사가 둘이다. '먹을 만큼'처럼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 명사여서 띄어 쓰지만, '너만큼', '에서만큼'처럼 체언이나 조사 뒤에 붙으면 조사여서 앞말에 붙여 쓴다. 보조사 '은/는'도 앞말에 붙으므로 '에서만큼은'은 모두 붙여 적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이끄는 대로'는 관형어 뒤의 의존 명사 '대로'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고, '따라갈밖에'는 어미로 굳어진 '-ㄹ밖에' 구성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5년만인데'이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만'은 띄어 써야 하므로 '용수야, 5년 만인데 한잔해야지.'가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할텐데'이다. '텐데'는 의존 명사 '터'를 품은 '터인데'의 준말이므로 띄어 써야 하여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 텐데.'가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태권도에서 만큼은'이다. 여기서 '만큼'은 조사 '에서' 뒤에 이어져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고, 보조사 '은'도 앞말에 붙는다. 따라서 '태권도에서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가 맞다.

오답 포인트

2번의 '만'과 3번의 '텐데'는 둘 다 자주 붙여 쓰는 형태로 오인되기 쉽다. 4번은 '만큼'을 관형어 뒤의 의존 명사로 착각해 띄어 쓰기 쉽지만, 여기서는 조사 '에서' 뒤에 붙은 조사이므로 '에서만큼은'을 모두 붙여 써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띄어쓰기는 문제 되는 말이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굳어진 어미인지부터 본다. 의존 명사이면 기본적으로 띄어 쓰고, 조사와 보조사는 앞말에 붙인다. '만큼'처럼 품사가 둘인 말은 관형어 뒤이면 의존 명사여서 띄어 쓰고, 체언이나 조사 뒤이면 조사여서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5년 만'은 띄어 쓰고 '할 텐데'도 띄어 쓰며, '갈밖에'의 '-ㄹ밖에'와 조사로 쓰인 '에서만큼은'은 붙여 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 붓다)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 불다)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 붓다)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퉁퉁 불었다. (→ 붇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활용형만 보지 않고 문맥에 따라 '붓다'와 '붇다'의 기본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붓다는 부기가 오르거나 액체·돈 등을 어떤 곳에 넣는 말이다.
붇다는 물이 불어나거나 물기에 젖어 부풀어 오르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얼굴이 부어서'는 얼굴에 부기가 오른 상태를 뜻하므로 기본형이 '붓다'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기본형을 '불다'로 제시한 점이다. '개울물이 불어서'는 물의 양이 불어나 징검다리가 잠긴다는 뜻이므로 기본형은 '붇다'이다.
③ O: '은행에 부은 적금'은 돈을 계좌에 넣었다는 뜻이므로 기본형이 '붓다'가 맞다.
④ O: '손과 발이 퉁퉁 불었다'는 물속에 오래 있어 물기를 먹고 부풀었다는 뜻이므로 기본형이 '붇다'가 맞다.

오답 포인트

'불어서', '불었다'처럼 활용형에 '불-'이 나타나면 기본형도 곧바로 '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기본형은 표면형이 아니라 뜻으로 가려야 하므로, 물이 늘거나 물기를 먹어 부푼 상황이면 '붇다'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기나 돈을 넣는 뜻이면 '붓다'이고, 물이 늘거나 물에 젖어 부푸는 뜻이면 '붇다'이다. 기본형은 활용 모양보다 문맥상의 뜻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부기·돈은 붓다, 물의 증가·물먹음은 붇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①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② 신제품을 선뵀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④ 그 발가숭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렸다가 물속에 텀벙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연결 어미 '-으매', 용언 활용형, '-더군요' 결합, '처-/쳐-'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으매'는 어떤 일의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선보이다'는 '선보다'의 사동사이므로 어간이 '선보이-'이고, 여기에 어미 '-었어도'가 결합하면 '이+었'이 '였'으로 줄어 '선보였어도'로 활용한다. 이를 '선보이다'가 아니라 '선뵈다'로 잘못 알고 '뵈-'에 '-었어도'를 붙이면 '선뵀어도'라는 잘못된 표기가 나온다. 즉 '뵈다/보이다'를 혼동하면 활용형을 틀리게 적는다.
'야속하다'처럼 '하다'가 붙은 말은 '-더군요'와 결합할 때 '하'를 살린 '야속하더군요'가 된다. '야속'의 받침 'ㄱ'은 안울림소리이므로 '하'의 'ㅏ'만 주는 거센소리 축약('터')은 일어날 수 없고, 만약 준다면 '하'가 통째로 탈락해 '야속더군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약 없이 '야속하더군요'로 적는 것이 옳으며 '야속터군요'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준형은 '처박다, 처박히다'이고 '쳐박히다'는 표준 표기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있으매'는 연결 어미 '-으매'가 붙은 형태로,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므로'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맞춤법이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선뵀어도'이다. 기본형은 '선보이다'이므로 어간 '선보이-'에 어미 '-었어도'가 붙어 '이+었'이 '였'으로 줄어든 '선보였어도'가 맞다. '선보이다'를 '선뵈다'로 착각해 '뵈-'에 '-었어도'를 결합한 '선뵀어도'는 잘못된 표기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야속터군요'이다. '야속하다'에 회상 어미 '-더군요'가 붙은 형태로, '야속'의 받침 'ㄱ'이 안울림소리라 '하'가 '터'로 축약될 수 없고 준다면 통째로 탈락해야 하므로, 축약 없이 '야속하더군요'로 적는 것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쳐박히는'이다. 표준형은 '처박다/처박히다'이므로 실제로는 '처박히는'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선보다, 뵈다, 보이다'가 섞이면 쉽게 흔들리고, ③은 '하더군요'가 줄어든다고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④는 발음에 끌려 '처-'를 '쳐-'로 적는 함정을 노린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미 문제는 기본형을 먼저 복원해 본다. '있으매'는 어미 '-으매'를, '선뵀어도'는 기본형 '선보이다'를, '야속터군요'는 기본형 '야속하다'를, '쳐박히는'은 표준형 '처박히다'를 떠올리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있으매'는 이유, '선보이다'는 '선보였-', '야속하더군요'는 '하'를 살림, '처박히다'는 '처-'로 적는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자: _____
작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했지요. 전집에 실린 「○○기행」, 「○○를 찾아서」 같은 단편들도 거의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자료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작가 수업에도 보탬이 됐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이지요?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작가의 답변에서 중심 화제가 '취재에 주력하는 이유'인지, 시기·개별 작품·결과 같은 주변 정보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중심 화제: 답변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 결정 차이축: 이유를 묻는지, 시기·사례·결과를 묻는지 / 키워드: 취재, 리얼리티, 공감대
- 주변 정보: 중심 화제를 뒷받침하려고 덧붙인 예시나 부연이다 / 결정 차이축: 본론인지 보조 정보인지 / 키워드: 습작 시절, 전집 수록 단편, 공감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취재를 중시한 시기를 덧붙인 부연이다. 답변의 중심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왜 취재에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이다. 틀린 표현은 '언제부터'이다. 올바르게는 취재에 주력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② X
답변은 '이번 신작'에 한정되지 않고 작품 활동 전반과 전집의 단편들까지 함께 말한다. 또한 핵심은 리얼리티가 강조된 결과 자체보다 그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취재를 중시한 이유이다. 틀린 표현은 '이번 신작'이다. 올바르게는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③ X
답변 말미에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어떤 작품이 공감을 얻었는지를 열거하지는 않는다. 제시된 작품명도 공감을 얻은 작품 목록이 아니라 취재를 통해 자료를 얻어 쓴 예시이다. 틀린 표현은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이다. 올바르게는 공감을 넓히기 위해 왜 취재를 중시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④ O
답변 첫 문장에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이유를 직접 밝히고, 이어 사실성에 근거해야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독자의 공감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질문의 초점이 답변 전체의 중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면접형 빈칸 문제에서는 답변 속에 잠깐 나온 시기 표현이나 예시 작품명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도 '습작 시절부터' 때문에 ①로, '공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③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핵심은 취재를 중시하는 이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답변의 첫 문장에서 이유를 밝히는 표현인 '...때문이다'를 먼저 잡으면 중심 질문이 보인다. 이후의 문장들이 그 이유를 풀어 설명하면 정답은 시기나 예시가 아니라 그 이유 자체를 묻는 선택지이다.

암기 포인트

면접형 빈칸은 답변의 중심 이유가 줄기이고, 시기·작품 예시는 가지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외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날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짓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①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②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③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④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준이 본능이 아니라 마음과 이치라는 점을 파악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마음과 이치: 인간이 본능적 욕망과 감정을 성찰하고 절제하게 하는 기준이다.
본능: 배고픔, 욕망, 분노, 슬픔처럼 자연스럽게 솟는 충동이다.
지문은 마음과 이치를 버리고 본능만 따르면 인간도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X: 지문은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근심과 슬픔 같은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할 뿐, 그것을 핵심 주장으로 삼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근심과 슬픔'을 지문의 중심 논지로 잡은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인간은 본능과 감정에 끌리기 쉬우므로 마음과 이치로 이를 제어해야 한다'이다.
2번 X: 지문에는 빈부 격차가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 구조적 분석이 없다. 틀린 표현은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이다. 올바르게는 '가난하든 부귀하든 인간은 계속 욕망을 탐하므로 상태 자체보다 본능 추종이 문제'이다.
3번 O: 지문은 마음과 이치를 제외하면 인간도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하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본능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다.
4번 X: 지문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본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과 이치가 인간을 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본다. 틀린 표현은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자연의 이치를 아는 능력은 본능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성적 요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문에 본능, 감정, 빈부, 이치가 함께 나오므로 일부 예시만 떼어 일반화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감정의 지속성이나 빈부 문제를 부수적 예시가 아니라 중심 주장으로 바꾸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 파악 문제는 예시들을 하나로 묶는 결론 문장을 먼저 잡으면 된다. 이 지문에서는 '마음과 이치를 제외하면'과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를 연결해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인간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마음과 이치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莊子)도 소년(少年)은 대년(大年)을 못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총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체험의 한계, 독서의 의미, 그리고 다독보다 필요한 독서의 중요성을 정확히 읽어 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체험은 인간이 직접 겪어 얻는 경험으로 수명 때문에 축적량에 한계가 있다.
독서는 타인의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얻는 수단이므로 연령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제시된다.
이 글은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태도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책을 가려 읽는 태도를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학다식과 박람강기를 좇아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많이 아는 것 자체보다 무질서하게 쌓인 잡박한 지식이 문제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이다. 글은 20대, 40대, 70대의 차이를 체험의 양으로 말했을 뿐이고, 곧바로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라고 하여 독서의 가치를 나이로 비교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정도가 글의 취지에 맞는다.

③ O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을 직접 할 수 없으므로 독서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드러난다.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O
글쓴이는 평생 다 읽지 못할 만큼 책이 많더라도 반드시 자기 눈을 거쳐야 할 책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는 무작정 많이 읽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선별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앞부분의 20대, 40대, 70대 비교에 끌리면 나이가 많을수록 독서도 더 유리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글은 체험의 차이에서 출발해 곧바로 연령보다 독서가 본질이라고 논지를 전환하므로, 연령 우열을 독서 우열로 바꿔 말한 ②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의 기준이 무엇인지 끝까지 유지해서 읽으면 된다. 이 글의 비교 대상은 나이에 따른 체험의 한계이지 나이에 따른 독서 효율이 아니므로, "연령이 아니라 독서"라는 전환 문장을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체험은 수명에 묶이고, 독서는 그 한계를 넘긴다. 다독보다 필요한 책의 선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4.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어렵다고 꼭 외로운 밤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

누가 뭐라고 그랬냐.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

<보 기>
ㄱ. ㉮: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ㄴ. ㉯: '나'의 말을 '그'가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
ㄷ. ㉰: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제시문 속 발화와 서술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하여 <보기>의 진술이 맞는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가)에서 '나'는 '그'에게 아직 자신을 아끼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나)에서 '그'는 '그따위 이웃은 없다',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하며 '나'의 위로를 거칠게 거부한다.
(다)에서 '그'의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라는 말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체면과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심리를 드러낸다.

핵심 개념

인물의 발화 해석은 말의 표면 의미만이 아니라 앞뒤 상황과 서술자의 설명을 함께 읽어야 한다. 위로의 말은 희망 제시인지, 반발의 말은 거부인지, 자기 학력 언급은 우월감 과시인지 상처 입은 자존심의 표출인지 맥락으로 판단한다.

적용 기준

이 문항에서는 각 발화가 놓인 상황과 직후 서술을 붙여 읽는 판단이 필요하다.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의 직접 근거이고, 학력 언급 뒤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은 우월감보다 초라한 현실을 의식한 허세와 비애를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 1번은 ㄱ만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ㄴ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가)에서 '나'는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을 말하며 '그'에게 희망을 주려 한다.
- (나)에서 '그'는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하여 '나'의 말을 곧이듣지 않으려 한다.
- 따라서 'ㄱ만 옳다'가 아니라 'ㄱ, ㄴ이 옳다'로 고쳐야 한다.

2번 O
- ㄱ은 (가)에서 '나'가 '그'를 위로하며 타인의 온기를 믿어 보게 하는 말이므로 옳다.
- ㄴ은 (나)에서 '그'가 '개수작 마!'라고 반발하고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하므로 옳다.
- ㄷ은 (다)의 태도 해석이 잘못되었으므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따라서 옳은 것만 묶은 선택지는 2번이다.

3번 X
- 3번은 ㄴ, ㄷ을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 (다)의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는 '그'가 사회적 추락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붙드는 말이지, '나'보다 학력 우월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 따라서 'ㄴ, ㄷ'이 아니라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4번 X
- 4번은 ㄱ, ㄴ, ㄷ을 모두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ㄷ이 틀려서 성립하지 않는다.
- '그'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사라진다. 이 장면은 우월감 과시보다 초라한 현실과 상처 입은 자의식을 강조한다.
- 따라서 'ㄱ, ㄴ, ㄷ'이 아니라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오독은 (다)의 학력 언급을 문자 그대로만 읽고 '나'보다 우월함을 과시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뒤 맥락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의식하는 인물의 상처와 허세가 더 두드러진다. 또 조합형 문항이므로 ㄱ의 타당성만 확인하고 ㄴ의 반발 태도를 놓치면 1번으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말에 대한 설명 문제는 발화 한 문장만 떼어 읽지 않고 직전·직후 서술까지 함께 본다. 먼저 위로, 거부, 허세, 자조처럼 말의 기능을 판정한 뒤 각 보기 진술의 맞고 틀림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위로는 ㄱ, 거부는 ㄴ, 학력 발언은 우월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존심의 표출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온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꼭꼭 숨어 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선묘에 의지해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상의 원리로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해 온 역사가 시사하듯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어도 그 조화와 원리에 대한 관념은 화포에 진하게 물들어 있다. 사실의 묘사보다 정신의 표현을 중시한 까닭에 동양 회화에서 빛과 그림자는 이처럼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렴풋이 시도되는데, 이는 북경으로부터 명암법, 원근법 등에 기초한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량의 「견도(犬圖)」, 이희영의 「견도(犬圖)」 등 일부 화인들의 그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①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②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제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양 전통 회화가 명암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와 조선 후기 서양 화법의 유입으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암법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대상의 입체감과 실제감을 높이는 표현 방식이다.
동양 전통 회화는 선의 맛과 정신성의 표현을 중시하여 사실적인 명암 표현을 의도적으로 약하게 두는 경향이 있다.
조선 후기 일부 그림은 북경을 거쳐 들어온 서양 화법의 영향으로 명암 표현을 부분적으로 시도한 흔적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지문에서 동양 회화는 빛과 그림자로 사실성과 물리적 실제감을 높이는 방식을 선의 맛과 정신성을 중시한 전통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적 재현과 거리를 둔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2번 O: 지문에 따르면 빛과 그림자는 그림의 사실성과 사물의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인다. 따라서 명암이 실제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진술은 지문과 맞는다.
3번 X: 틀린 부분은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김홍도의 「씨름」은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어 명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이고, 김두량의 「견도」는 조선 후기 서양 화법의 영향으로 명암 표현의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올바르게는 "김홍도의 「씨름」에는 명암 표현이 거의 없고, 김두량의 「견도」에는 서양 화법의 영향으로 명암 표현의 흔적이 나타난다"이다.
4번 O: 지문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 때문에 명암 표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선 중심의 전통 때문에 명암 표현이 드물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3번은 두 작품을 단순히 대비해 놓고 둘 다 명암법을 쓴다고 오독하게 만든다. 그러나 지문은 「씨름」에 명암법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말하고, 「견도」에는 뒤늦게 유입된 서양식 명암 표현의 흔적이 있다고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비교 선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상적으로 묶지 말고 지문이 각 작품에 대해 직접 말한 표현을 먼저 대조하면 된다. 한 작품은 명암이 없고 다른 작품은 명암의 흔적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 수준을 그대로 맞춰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양 전통 회화는 선과 정신성, 서양 화법 유입 뒤 일부 작품은 명암의 흔적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 되어 진충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여일 동심하세.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해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작품에 드러난 애국 계몽의식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읽어 적절한 감상 내용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작품은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로, 1896년(대조선국 건양 원년) 무렵 독립신문 계열에서 지어진 개화기 애국 가사이다. 자주독립을 기뻐하며 충군애국, 국권 보전, 국민 계몽, 문명개화를 노래한다. 특히 '부녀 경대(婦女 敬待)'는 '여성을 공경하고 대우하라'는 뜻으로, 이어지는 '자식 교육'과 함께 여성 존중과 교육의 필요를 사람마다 실천할 덕목으로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에 직접 근거한 반응이다. '부녀 경대(婦女 敬待)'는 '여성을 공경하고 대우하라'는 뜻이므로, 이를 사람마다 할 일로 제시한 것은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작품 표면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낸 감상이므로 가장 적절하다.

② X
마지막 행 '말과 일과 같게 하세'가 언행일치를 요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가 틀렸다. 이 작품은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처럼 자주독립을 경축하는 정조를 바탕으로 하며, 나라가 위급하다는 형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전반부가 작품의 정서와 배치되므로, 언행일치 요구가 맞더라도 선지 전체는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서 텍스트에 온전히 부합하는 ①이 ②보다 우세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와 '부국강병을 위해'이다. 작품에는 타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고, 군사력 강화보다는 사농공상이 각자의 일에 힘써 나라의 태평과 안락을 이루자는 뜻이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신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일에 힘써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자고 한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와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이다. 이 작품은 독립성 훼손을 한탄하기보다 자주독립을 기뻐하고, '문명개화 열린 세상'이라 하여 문명개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주독립을 기뻐하며 문명개화의 시대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작품의 일부 표현만 붙잡고 시대적 배경을 과장하면 흔들리기 쉽다. 특히 ②는 뒤 절의 '언행일치'가 맞아 보여 골라지기 쉬우나, 앞 절의 '위급한 형세 구체화'가 작품의 경축 정조와 어긋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작품의 정조는 위기 묘사나 문명 비판이 아니라 독립의 경축, 국민 계몽, 문명개화의 수용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감상 문제는 먼저 화자의 정서가 기쁨인지, 탄식인지, 경계인지부터 가른다. 그다음 핵심 시어인 자주독립, 나라 보전, 부녀 경대, 문명개화를 기준으로 선택지가 작품의 실제 내용에 있는 말인지 확인한다. 한 선지 안에서 일부만 맞고 일부가 어긋나면 그 선지는 부적절함도 함께 점검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필균 「애국하는 노래」(1896, 개화기 애국 가사): 자주독립의 기쁨, 충군애국, 여성 존중과 교육, 문명개화 수용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펠림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 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펠림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당시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변(水邊)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눠지게 된 것이다.

① 펠림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을 말한다.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펠림시스트의 예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펠림시스트의 개념과 그것이 서울 강북의 도로망 형성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펠림시스트는 이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위에 새로운 것이 덧씌워진 상태를 뜻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하천 중심의 생활 공간이 이후 자동차 도로와 간선도로로 바뀌었지만, 그 옛 공간 구조의 흔적이 오늘날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에 남아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종이가 발명되기 전 양피지가 귀해 이미 쓴 글을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이 빈번했고, 그 결과 이전 글자와 새 글자가 겹쳐 보이는 현상이 펠림시스트라고 설명하였다.

② O
과거에는 하천이 생활과 주거의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산업화 이후에는 대형 간선도로가 등장하면서 기존 커뮤니티가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었다고 하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와 '필연적이다'이다.
글은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로 바뀐 이유를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위생 문제와 자동차 급증으로 자동차 도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인구 밀도 상승으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동차 도로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하천 주변이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이다.

④ O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하천을 따라 형성된 생활 공간의 흔적이 현재 공간에 남은 사례로 제시되므로, 펠림시스트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물이 생활의 기본 요건'이라는 앞부분과 뒤의 '자동차 도로로 변화한 이유'를 억지로 이어 붙인 선지이다.
글은 하천 주변 정착의 이유와 하천 주변이 도로로 바뀐 이유를 구분하는데, 이를 하나의 인과관계로 합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문에서 한 현상의 '형성 원인'과 이후의 '변화 원인'을 따로 구분해 읽으면 된다. 앞 시기의 조건을 뒤 시기의 결과 원인으로 바꿔 말하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펠림시스트는 옛 흔적 위에 새 층위가 덧씌워진 상태이며, 강북 도로망은 하천 중심 공간의 흔적이 남은 사례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데!'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하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① 수양산(首陽山) ᄇᆞ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ᄒᆞ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ᄒᆞᄂᆞᆫ것가.
비록애 푸새앳 거신들 긔 뉘 짜헤 낫드니.

②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ᄃᆞᆯ 도다 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ㄹ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③ 내 언제 무신(無信)ᄒᆞ야 님을 언제 속엿관ᄃᆡ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ᄯᅳᆺ지 젼혀 업다.
추풍(秋風)에 지ᄂᆞᆫ 닙 소릐야 낸들 어이ᄒᆞ리오.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ㅣ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ᄂᆞᆫ 객(客)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김영랑의 「독을 차고」에 나타난 비장한 자기 절제와 절개 의지가 다른 작품의 정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제시시는 허무한 세계와 짐승 같은 현실 속에서도 '독'을 지닌 채 자기 혼을 지키려는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키워드는 허무 인식, 내적 긴장, 절개, 자기 보존이다.
①의 정서는 부정한 현실을 용납하지 않고 절의를 지키려는 비분과 지조이다. 키워드는 절개, 현실 비판, 강한 의지이다.
②~④의 정서는 각각 ② 안빈낙도와 풍류, ③ 임을 기다리는 원망과 애상, ④ 망국에 대한 회고적 비애로 갈린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양산과 백이·숙제의 고사를 끌어와 절의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제시시가 허무한 현실 속에서도 '독'을 차고 혼을 지키려는 비장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과 정서가 가장 가깝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제시시와 정서가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이 작품은 낙엽에도 앉고 박주산채로도 만족하는 한가롭고 소박한 풍류의 정서가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자연 속 안분과 만족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제시시와 정서가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이 작품은 임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생긴 원망과 기다림의 애상적 정서가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연정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서운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제시시와 정서가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이 작품은 만월대를 보며 고려 왕조의 흥망을 떠올리는 회고적 비애와 감상에 무게가 있다. 올바르게는 망국을 돌아보는 역사적 슬픔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슬픔이나 비애가 보인다고 해서 같은 정서로 묶으면 ③이나 ④로 흔들리기 쉽다. 제시시의 핵심은 슬픔 자체가 아니라 허무를 알면서도 끝내 자기 혼을 지키려는 의지이므로, 정서의 방향이 안으로 굳게 서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가 정서 비교 문제에서는 먼저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가른다. 절개, 저항, 자기 결의가 중심이면 같은 축의 작품을 고르고, 풍류, 연정, 회고가 중심이면 다른 정서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독을 차고」는 허무 속 슬픔이 아니라 절개를 지키는 비장한 결의이고, ①은 절의를 지키려는 비분의 정서이다.

NoteBase

문 19. ㉠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 공리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 자의적이라는 점 또한 널리 알려진 ㉢ 상식이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로 총칭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곤 한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 연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① ㉠ 共理
② ㉡ 自意的
③ ㉢ 常識
④ ㉣ 緣關性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언어학의 핵심 개념과 한자어 표기를 함께 묶어, 개념의 뜻에 맞는 정확한 한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리는 어떤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원리이므로 公理라고 쓴다. 자의적은 기표와 기의의 결합에 필연성이 없다는 뜻이므로 恣意的이다. 상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앎이므로 常識이 맞다. 연관성은 서로 이어져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緣關性이 아니라 聯關性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리는 公理가 맞다. 共理는 함께 이치를 이룬다는 식으로는 쓰일 수 있어도, 수학·논리학·언어학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라는 뜻의 정착된 한자어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共理이다. 올바르게는 公理이다.
② X
자의적은 언어 기호의 결합이 본질적 필연성이 아니라 임의성에 따른다는 뜻이므로 恣意的이 맞다. 自意的은 스스로의 뜻이라는 느낌은 줄 수 있으나, 언어학 용어로 굳어진 표기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自意的이다. 올바르게는 恣意的이다.
③ O
상식은 常識이 맞다. 常은 늘, 識은 앎이라는 뜻이어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 앎이라는 문맥과 정확히 맞는다.
④ X
연관성은 서로 연결되어 관련됨을 뜻하므로 聯關性이 맞다. 緣關性은 인연 緣을 써서 일반적인 표기에서 벗어난다.
틀린 표현은 緣關性이다. 올바르게는 聯關性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자의적을 일상어 감각으로 보면 自意的처럼 보이기 쉬워 헷갈리기 쉽다. ④도 연관을 막연히 '인연'의 緣으로 떠올리면 속기 쉽다. 이 문항은 뜻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학술 용어로 굳어진 한자 표기를 정확히 아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 문제는 음이 비슷한 글자를 고르지 말고, 먼저 단어의 정확한 뜻과 쓰임을 확정한 뒤 그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한자를 대응시키면 된다. 특히 전공 개념어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기를 우선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리는 公理, 자의성은 恣意性, 상식은 常識, 연관성은 聯關性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에 지식을 제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 지성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 정보 시스템 등의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 지도자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②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③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문의 핵심 내용인 컴퓨터 시스템 활용, 집단 지성 시스템의 기능, 미래학자 참여 목적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집단 지성 시스템은 인간의 두뇌와 지식 정보 시스템 등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이다.
미래 예측 시스템은 미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려는 시스템이다.
미래학자의 참여 목적은 단순 보고를 넘어서 장기적 사안을 함께 논의하여 미래 전략 수립과 분별 있는 의사 결정을 돕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관은 미래 정보를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컴퓨터 시스템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도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관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진술은 지문과 맞다.

② X
틀린 표현은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지문은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를 장기적 관점의 논의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미래학자의 참여는 미래 전략 수립과 분별 있는 결정을 위한 장기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고쳐야 한다.

③ O
지문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하려 한다는 취지는 지문과 부합한다.

④ O
지문은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직접 제시한다. 따라서 재해 예측과 대응을 위한 복원 시스템 수립에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맞다.

오답 포인트

미래 예측 시스템, 집단 지성 시스템, 미래학자의 역할이 모두 미래 전략과 의사 결정에 연결되어 있어 주체와 목적을 섞기 쉽다. ②는 미래학자의 참여 목적을 시스템 경쟁력 강화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각 선지의 주체와 목적을 지문 문장과 일대일로 대응시켜 보면 된다. 특히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면 역할 혼동으로 인한 오답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집단 지성 시스템은 재해의 예측·대응·회복을 돕고, 미래학자는 장기 논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돕는다.

NoteBase